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사·도민페스티벌 걷기행사에서 참석해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민 800여명 도심 걸으며 세계양궁대회 성공기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5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 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사·도민 페스티벌 걷기 행사가 뜨거운 관심과 응원의 열기 속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과 연계한 '2025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길을 직접 걸으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걷자임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병

5·18민주광장·금남로~충장로 일대서 사·도민 페스티벌 걷기
 이승훈·최미선 등 양궁 금메달리스트 참여... 행사 열기 '후끈'

내 남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광주 남구청), 최미선(광주 은행 댄스양궁단) 선수도 함께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랜덤 플레이어انس, 양궁 활쏘기 체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행사 이후 열린 개회식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주요 내빈들이 무대에 올라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양궁 활을 형상화한 폭죽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걷기 행사의 출발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손에 들고 전 일빌딩245를 출발해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약 1.2km의 구간을 함께 걸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까지 이동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걷는 이 자리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다"며 "광주만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69개국 710명,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40개국 416명의 선수단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숙박, 수송, 경기 운영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최상의 운영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부활 '착공 기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정부 90% 지원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광주 용역 예산 10억원 삭감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 공사 정부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사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광주 용역'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예산에는 정부논의에서 삭감됐던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정부 지원예산 183억원이 부활했다. 당초 정부 지원예산은 367억원이 었지만 이중 절반이 반영돼 광주시 매칭 예산 200억원과 더해지면 올해 상반기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방음벽 3400억원 포함)을 투입, 동광주IC~광산IC 구간 11.2km를 4차로에서 6차 도로로 넓히는 공사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50대 50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협약했으며 10여년 만에 공사비가 28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올해 필요한 매칭예산을 마련해 도로공사 측에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국비를 늘리고 시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사업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용봉IC가 개설되고 도로가 확장돼 교통 정체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광주 상품권) 예산도 최종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이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정부 90%, 지자체 10% 분담으로 결정됐다.

광주상품권은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광주지역을 중심에 두고 추진을 준비했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 도시 용역' 예산 10억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모빌리티 시범도시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역을 '광주광역시'로 명시하고 반영했다.

특히 'AI 모빌리티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광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차 자율 주행 시험, 태양광 등으로 자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실증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으로 평가돼 기대감이 높았다.

국회 예결위는 모빌리티 시범도시 용역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기자

지면 안내

- ▶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난민도 대상, 명품관대형마트 안돼 3면
- ▶ 평균기온폭염일수·열대야일수도 '역대급' 9면

'폭염' 전남 농가 피해 잇따라... 가축 3만7000여마리 폐사

폭염 특보가 9일째 이어진 전남 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여 마리에 이르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섰다. 광

주·전남 지역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18

개 시군 농가 92곳에서 폭염으로 가축 3만798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5억 9000만원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닭 농가 19곳에서 32만 2638마리, 오리 농가 5곳에서 3980마리, 돼지 농가 68곳에서도 1180마리가 폐사했다.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온

열질환자(열 탈진·열사병·열 경련)는 광주 16명, 전남 48명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현재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다. /염선호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하나

하나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